

설날가정예배문

① 예배초청 인도자

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(마18:20).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때,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. 이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.

② 찬송가 550장(통248) /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

③ 기도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인도자

④ 성경봉독 히브리서 12:1-2

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

⑤ 말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

마라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운동입니다. 42.195km의 장거리를 달리게 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단거리와 같이 단숨에 끝내버리는 운동이 아닙니다.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고단한 육신을 인내하며 달려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. 그런데 몸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너무나 힘겨운 경주가 될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. 삶의 자리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죄와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. 그래야 영적인 몸을 가볍게 만들어 최상의 상태로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한다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코스를 벗어나 이탈자가 되고 맙니다. 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셨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. 당시 최고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.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신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.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와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.

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.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간 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.

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.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돌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.

“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?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. 저 소와 같이 앞에 놓인 근심과 걱정의 담을 너머 바라보십시오.

담 너머뿐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”

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.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유혹들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. 하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.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. 돌담 너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.

⑥ 기도 인도자

⑦ 찬송가 546장(통399) /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

⑧ 축복의 시간 우리 가족 모두 서로에게 인사합니다.

⑧ 축복의 시간 “사랑합니다”, “축복합니다”, “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립시다.”

⑨ 주기도문 다같이

⑩ 폐회 인도자

설날 가정예배를 마칩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.